

# 책세상 김광식 주간

##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0권 돌파 작지만 큰 인문학 캠프, 이게 되겠냐고 했어?



1990년대 이후 한국출판계 문고판의 대명사로 입지를 굳힌 책세상문고 우리시대가 100권을 돌파했다. 첫 책인 《한국인의 정체성》(탁석산 지음)이 나온 지 5년 만에 거둔 쾌거다. 현실적으로 2,3권 팔아야 겨우 단행본 한 권의 판매수익을 낚는 문고판 수익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염려되는 모험이었다. 그것도 돈 안 되는 '인문학' 문고란 이름을 달고 나오겠다 했으니 주변의 반응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1990년이면 한창 박고살기 어려운 때였잖습니까. 신문에서 우리나라 박사급 교수 6만 명 정도가 순실업자 상태라는 기사를 읽게 됐어요. 사실 주변에서 이게 되겠냐는 말을 들을 수없이 해댔습니다. 근데 대학에 긴장감을 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문학 캠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순 없었죠.”

책세상 김광식 주간이 문고기획을 가시화시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시대 논쟁, 화두를 쥐고 있는 학자군과 부지런히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당시 방향타 역할을 해준 이들은 철학자 김영건, 역사학자 김용우, 정치학자 안외순, 전재호, 문학평론가 박철화, 김진수, 불문학자 진인혜 등. 이들을 필두로 편집위원이 구성됐고 곧 죽비 같은 우리시대 논쟁거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의 장은 다름 아닌 김광식 주간의 집이었다. 학자들은 토론회에서 이슬이슬한 격론을 벌이다 밤새는 줄 모르고 새벽을 맞이하기 일쑤였다. 탁석산 씨의 《한국의 정체성》부터 100번째 권인 구춘권 씨의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까지는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책들이다.

“4, 500개 이상의 주제를 놓고 하나씩 지워갔어요. 주제를 찾는 과정은 흥미로웠지만 적합한 필자를 찾는 일은 참 힘들더군요. 집인교수 인배의 40대 후반 학자들 중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는 의무적인 필자를 분석했죠. 신선한 필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단순한 청탁 그리고 원고 수급으로 마무리될 일은 아니었다. 모름지기 '인문학 캠프'를 선언하고 나오는 문고이니 책세상측과 편집위원들 그리고 필자, 삼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됐다. 필자의 원고를 받은 후 우리시대 현안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주제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했는가, 그리고 필자 자신의 시각으로 제대로 풀어썼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2, 제3의 토론이 이어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지금 와서 얘기지만 이 과정에서 몇 번씩 퇴고를 당한

필자와 사이가 틀어져 불발된 기획도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문고판이었나? 김광식 주간은 “문고는 모든 출판인들의 꿈 아니냐?”며 “편집자란 자신이 만든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읽히길 바라는 욕심을 갖고 있고, 문고판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충분한 그릇”이라고 했다.

“실제로 출판장 형식은 그 나라만의 대표적인 문고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를 바깥 나라서는 출판사들은 자신들만의 문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960, 70년대 삼승당문고, 용유문고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경우는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명백히 끌어올릴 만한 사실 문고판 출간은 모든 출판인들의 꿈입니다.”

에당초 쉬운 모험이 되리라곤 상상도 안했다. 그러나 편집부는 콘텐츠 확보 후 우리시대문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보자는 일종의 대비책, 특성화 작업부터 마련했다. 원고는 독자들의 독서 심리를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길지도, 짧지도 않게 600~800매 정도의 적정선을 맞춰 놓았다. 이 정도 분량이면 학적 지식과 현실적 관심사들을 농축시킨 원고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또한 필자 약력을 종전의 압축형 약력에서 벗어나 스토리 라인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과감히 시도했다. 책날개에서부터 특색 있는 정보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자들이 우리시대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손꼽는 것은 이 책이 그만의 비평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반부에 담은 비평적 코멘트(critical comment) 꼭지가 이를 잘 증명하는 예다. 참고도서를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필자가 참고도서로 활용한 책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놓은 흥미로운 꼭지다. 특히 이 꼭지는 주례비평 일색인 우리나라에 올바른 비평문화를 시사하는 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주간은 “필자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책에 대해 비평적 코멘트를 넣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힌다.

“원고 문란에 비해 상, 권 부분이 대단히 깔끔한 것도 특징이죠. 새로운 세대 독자들을 기냥하려면 호홉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또한 수주보다 비주카 더 재미있단 평가들이 많습디다. 탁석산 박사의 책이 대표적이죠.”

우리시대는 지금껏 총 65만 부 가량 판매됐다. 책세상 문선회 과장에 따르면 책세상을 먹여 살리는 ‘귀한 자식’이 된 셈이다. 그러나 편집진은 우리시대문고가 출판계 나아가 우리 사회에 귀한 시사점을 안겨주었다는 데서 책의 의미를 발견한다. 특히 한국출판계가 새로운 국내 필자를 개발하고 필력이 담보된 필진으로 성장시키는 지난한 과정을 두려워하는 현실에서 논리력으로 무장된 학자군을 발굴하고 꾸준히 성장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공로는 남다르다.

“사개장 강법진 사장님과 행각의나부 백경성 사장님 등이 모태에 이 책을 만드는 이가 누구인지 궁금했다고 말씀하실 바 있어요. 그만큼 필력과 비평적 시각이 확보된 필진을 발굴하고 키우고 키워겠다는 게 지난한 과정이런 걸 아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시대로 자신을 알린 이 중에는 다방면에서 명함을 내미는 이들이 많다. 탁석산 씨를 필두로 조현연, 김호경 씨 등은 우리시대를 통해 독자들과 처음으로 대화창구를 만들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대표격 인물들이다.

지난 9·11 테러 사건 발생 당시, 언론사에서는 너도 나도 김광식 주간을 찾았다. 국제정치 전공자는 많은데 갈등, 분쟁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찾기 힘들니 필자섭외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필자와 관련해 목이 마른 건 책세상측도 마찬가지다. 김 주간은 “우리도 이미 그런 주제를 잡았었지만 써 줄 인물이 없어서 보류해 뒀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힌다. 그간 개발해 놓은 콘텐츠는 100종이 훨씬 넘는다. 관건은 적합한 필자 섭외인데 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둔 상태다.

100권 돌파?! 그렇다고 이제 이 모험이 끝나려나 여겨선 안된다. 다만 앞으로 몇 권이나 더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 김 주간은 “우리 사회가 너무 훌륭해서 쟁점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안 나올 지도 모른다”고 토를 달았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큰 메시지 전하는 세계의 문고판

####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발견총서(Decouvertes Gallimard)를 번역해 소개했다. 책의 절반 이상이 컬러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대전환을 시도했으며 영상문화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들의 감수성을 잘 발견해냈다는 평가를 줄곧 받고 있다.

#### 삼림 지식총서

지식과 교양의 대중화를 표방하며 지는 2003년 출간된 국내 지식총서다. 국제관계, 예술 철학, 사회, 종교, 과학, 역사문명 등 전방위적 주제들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만 원에 3권을 볼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대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고, 2004년에는 100권을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 김영사의 히룻밤 지식여행

토텐북스(Totem Books)에서 출간한 책을 번역 소개했다.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인문학 콘텐츠를 세련된 일러스트와 재치 있는 설명을 곁들인 포맷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고다. 심리학, 플라톤, 철학, 춤스키 등 쉽지 않은 주제들을 습득, 활용을 목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독일의 레클람 시리즈

1828년에 라이프치히 레클람 출판사를 창립한 레클람이 아들과 함께 1867년에 출간한 소형문고다. 본래 명칭은 ‘세계문고’인데 출판사명에서 나온 ‘레클람 문고’란 이름으로 흔히 불린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의 명작을 엮기로 공금한 것이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어,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세계 최고기록인 약 7,500종을 출간한 바 있다.

#### 프랑스의 로로로

1958년 독일 작가 쿠르트 쿨렌베르크에 의해 처음 발간된 시리즈를 번역 소개했다. 고대의 소크라테스부터 현대의 마릴린 먼로까지 인문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다방면의 인물을 소개한다. 독일어권에서만 2,000 만 부 팔렸으며, 10여 개 언어로 번역·출간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기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 영국의 행간문고

영국 빅토리아 왕조의 출판업자인 J. 라인(John Lane) 그리고 조카 A. 라인(Allen Lane)이 협력하여 창간한 엮이본 문고. 담백함으로 책 한 권을 이란 슬로건 아래 시작된 문고시리즈로 오늘날 펄리컨북, 피콕 등 꼬마 펄리칸문고를 거느린 세계 최대문고 시리즈로 성장했다.

#### 일본의 이와나미문고

1927년 발간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고다. 사회 격변기에 시작된 시리즈로 ‘문고’ ‘신서’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문고판 시장을 알린 공헌을 갖고 있다. 동서고금의 고전 보급을 목표로 수준 높은 책들을 출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천 종이 넘는 다양한 목록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문고다.